

退溪의 『天命新圖』와 理氣說**

友枝龍太郎*

提 要

철학이란 본래 形而上之道로 玄妙難明하여, 선현이 배우는 이에게 쉽게 瞭解시키기 위해 그림<圖>을 그려서 이해를 돕게 하였다. 大儒 退溪는 일찍이 鄭秋巒과 함께 天命大道를 강론하여 마침내 天命完圖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版本의 不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급히 교정할 필요가 있고, 理氣는 그 근본이 있어 闡明할 부분이 있으니, 이것이 본문을 쓰게 된 연유이다. 현재 각종 판본을 모아 서로 校勘하여 논증해 보면 마땅히 高峯本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天命圖說에서 未發存養과 已發省察의 도리를 論說한 것을 보면 모두 退溪·秋巒의 定論이다. 또 天命新圖에 依據해서 退溪의 理氣說을 推考해 볼 수 있다. 그 說은 주로 理氣가 神妙하게 凝結되어 서로 병립·대응한다는 데서 시작하여 濂溪의 太極圖 最上段의 흰 圓을 削去한 바로 이것이다. 그 논증 과정과 결론한 바를 궁구해 보면 退溪가 理氣를 論說한 것이 모두 天命新圖에 근원을 두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理는 死物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없고, 計度함이 없고, 造作함이 없으며, 淸淨潔白하고, 空濶廣大한 理가 내가 궁구하는 바를 따라 妙用이 顯行한즉, 바로 淸정결백한 理光의 도래함이라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진실로 退溪는 窮理貫通

* 전 廣島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9호(1981) 게재논문

하여 道體의 妙가 바로 理氣가 不離不雜하는 極處임을 體諒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一. 鄭秋巒(1509~61)은 일찍이 金思齋에게 師事하여 理氣心性之說을 배웠다. 丁酉年(1537)에 思齋가 조정으로 돌아가자, 의지할 바를 잃어, 그의 弟之霖과 더불어 집에서 講學하다가 朱子의 論說을 取하고 諸說을 참조하여 圖를 만들었다. 또 문답을 지어 이름하여 天命圖說이라 하여 思齋와 慕齋에게 그것의 叱正을 구했다. 그러나 두분 선생이 서로 이어서 逝去하자 批評改正 받을 수 없었다. 癸丑年(1553) 가을 李退溪先生은 조카 ■가 지니고 있던 天命圖를 살펴보고서야 비로소 秋巒의 草本을 알게 되어 서로 講論하여 古說로써 증명하고, 자기의 의사를 참조하여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고, 남는 부분을 刪除하여 마침내 完圖를 작성하였으며, 또 거기에다 後敍를 썼다. 이것이 바로 退溪가 天命圖를 수정한 大略이다.

二. 天命新舊圖는 각종 板本에 따라 異同이 있다. 현재 日本版刻李退溪全集本·退溪全書本·高峯全集本으로서 校定하면 아래와 같다.

(一) 日本版刻本 天命舊圖에는 『四端之發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 故有善惡』로 되어 있고, 退溪全集本舊圖에는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로 되어 있다. 退溪와 高峯의 四端七情論辯을 참고해 보면, 소위 『四端之發은 理를 純和시킨다』云云한 것은 退溪가 己未年 正月 59세에 개정한 일이지, 癸酉年 53세 때 개정한 말이라 할 수 없으니, 마땅히 退溪全書本이 옳을 것이다.

(二) 日本版刻本·退溪全書本·高峯全集本天命新圖에는 모두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退溪가 59세 되던 해 10월에 개정한 말이며, 역시 癸酉年에 개정한 말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써 퇴계가 後年에 수정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三) 日本版刻本과 退溪全書本의 天命新圖는 중앙의 方形 안쪽 上段의 동그라미 『敬』字 좌우에 『存養』二字가 빠져 있다. 그러나 高峯全集本에 수록한 新圖에는 이二字가 있다. 마땅히 高峯全集本이 옳은 것이며, 아마 天命圖說 第十節에서 『未發存養』과 『已發省察』을 論說한 것은 退溪와 秋巒의 定論일 것이다.

三. 秋巒舊圖와 退溪新圖의 異同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氣 理 妙
舊圖는 天理命, 新圖는 天命, 으로
氣 氣 凝

된 것이 그것이다. 退溪는 癸酉後敍에서 作圖의 所以를 서술하여 이르기를..

『太極圖는 太極에서 시작되어, 陰陽五行이 다음이고, 그 이후에 妙凝의 테두리가 있다. 妙凝의 테두리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天命의 테두리가 바로 이것이다. 朱子가 말하기를, 『太極에 動과 靜이 있는 것은 바로 天命이 유행하는 것과 같다』라 하였다……天命之圖는 응당 太極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妙合而凝에서 시작한 것은 어째서인가? 인물이 이미 생겨난 후로부터, 그것을 밀어 올려 妙凝에 이르면 이미 극치가 된다. 이 때문에 응당 그림의 위쪽이 天命의 끝에 이어진다…… 天命의 테두리는 바로 周子(濂溪)가 말한 바 無極二五(陰陽五行)가 神妙하게 합해져 凝結된 것이다.』

이로써 볼 것 같으면 퇴계의 理氣說은 理氣가 神妙하게 凝結되어 서로 병립·대응한다는 데서 시작하여, 濂溪太極圖의 최상단의 白圖를 削除한 것이다. 퇴계가 또 이르기를

『濂溪가 理氣의 本源을 열어 조화의 機妙를 발한 것을 다섯으로 나누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인물의 稟성과 天賦가 理氣의 化生에 원리를 두어 하나로 합해지지 않으면 위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소위 理氣의 本源을 열어 조화의 機妙를 發한다는 것은 流出論과 發出論이다. 소위 理氣의 化生에 원리를 둔다는 것은 존재의

構造論과 理氣의 變證論이다. 濂溪의 太極圖說에서 이미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無極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사이에 본디 존재의 構造論이 없는 것이 아니라, 朱子 역시 太極을 論說하여

『태극의 전체가 渾然하여 각각 一物之中에 아니 갖추어 있는 것이 없고, 陰陽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함은, 바로 陰陽 그 本體를 가리키는 것이며, 陰陽에 섞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사이에 理氣의 辯證論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退溪가 天命新圖에 이르러서 처음에 太極·陰陽·五行·氣化·形化의 5 단계를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天命이 理氣가 신묘하게 응결된 데로 유행함을 말한 것이다. 天命圖說에서 理氣를 論說하여,

『천지의 사이에 理가 있고 氣가 있다. 理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氣의 조짐이 있게 된다. 氣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理의 존재가 있게 된다……理 밖에 氣가 없고, 氣 밖에 理가 없으니 이들은 반드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뉘어져도 역시 서로 紋亂할 수 없으며 분별이 없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理氣가 妙凝하여 不離不雜하는 辯證論이며, 이로써 존재의 구조론을 해석하였다. 秋巒과 退溪가 陰陽消長の 큰 동그라미를 묘사하여 동서남북으로 그린 것은 바로 天命이 理氣妙凝의 중심으로 유행하여 『理自理』 『氣自氣』임을 명시한 것이다. 己未年 이후 퇴계와 高峯이 사단칠정을 論說하여, 혹은

『四端之發은 理를 純和하므로 故로 善하지 않음이 없다. 七情之發은 理氣를 兼備한다. 故로 善惡이 있다.』

라 하고, 혹은 『사단은 理의 發이요, 칠정은 氣의 發』이라 하였다. 이것은 모두 理氣妙凝의 중심이 發動主體를 추구함을 말한 것이다. 퇴계가 理氣性情을 論說한 것은 모두 理氣性情의 辯證論이다. 理와 氣의 관계와 性과 情의 관계가 서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서로 섞인 것(雜)도 아닌 것은 둘(二)이면서 하나(一)고 하나이면서 둘이며, 統一된 대립이면서 대립된 통일이며, 나뉘어지지 않고 합해진 것인지는 보지 않으면 명백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理氣의 辯證論이다.

四. 퇴계는 理氣가 一物이 아님을 변증하는데, 明道가 道器를 論說한 것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만약 理氣가 과연 一物이라면 공자는 어찌서 만드시 形而上下로써 道器를 나누었으며, 明道는 어찌서 만드시 이와 같이 말하였는가? 明道는 또 그것을 器와 분리하여 도를 模索할 수 없으므로, 故로 器도 역시 道라고 말하였다. 器가 바로 이 道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道 밖에 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故로 道도 역시 器라고 하였다. 道가 바로 이 器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朱子가 劉叔文에게 답한 글을 인용하여··

『朱子가 평소에 理氣를 論說하여 많은 말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理氣가 一物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책에 이르러 단연코 理氣가 만드시 二物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性이 비록 氣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氣는 스스로 氣이고, 性은 스스로 性이며, 역시 스스로 서로 夾雜되지 않으니, 만드시 氣의 극치가 性이 되고, 性의 일반적인게 氣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花潭의 論說이 같은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理氣 不離不雜의 辯證論이며, 이로써 羅整庵·徐花潭·李蓮坊 등의 理氣一物之論을 반박하였다.

퇴계는 또한 心無體用辯을 지어서 蓮坊의 論說을 批正하였는데

『楊龜山은 道의 高妙함을 極言하여, 仁義로써 道를 다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莊子·列子가 仁義를 경시하여 道를 窈冥·昏默하게 한 말이다. 胡五峯은 性의 高妙함을 극언하여 善으로써 性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善의 卑近함이 性에 繫累됨을 염려하여, 오히려 告子의 湍水東西之說에 빠진 것이다. 胡廣仲은 動靜의 神妙함을 극언하여 動靜의 밖에 별도로 動과 대응되지 않는 靜과 靜에 대응되지 않는 動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과 지금 논하는 바, 象의 앞에 어째서 體가 있었으며, 動의 앞에 어째서 用이 있는가의 論說과는, 말은 비록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이다. 무릇 한 가지는 動靜이 粗淺하게 되어 故로 그 앞에 대응함이 없다함은 動靜의 신묘함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體用이 粗淺하게 되어, 故로 그 앞에 體用이 없다함은 道의 신묘함을 지적한 것이며, 또한 心의 신묘함을 지적한 것이다. 소위 묘하하다는 게 단지 一體·一用·一物·一靜의 사이에 있음을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이 밖에는 별도로 묘함이 없다.』

이로써 볼 것 같으면 퇴계가 性情動靜이 병립·대응하여 상호 媒介되는 妙를 논한 것은 心에 體用이 있는 것이지 體와 用이 없는 마음을 말한 것은 아님이 明瞭하다. 이것이 天命圖에서 無極太極의 한 圓을 削除한 이유이다. 心無體用辯은 甲子年 64세에 기술한 것이다. 非理氣爲一物辯證도 같은 해일 것이다. 근래 한국의 全斗河 박사가 退溪哲學의 핵심을 論說하여 그것을 理氣가 서로 병립·대응하는 辯證法이라고 하였다. 그 논리는 아주 的確한 것이다.

五. 그렇다면 퇴계가 理氣를 論說한 것은 그 사이에 先後가 없는가? 李達과 李天機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天命이 유행하는 것은 역시 별도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理가 지극히 높아 상대할 것이 없어 사물을 명령하는 것이지 사물에서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理는 본래 그 높음이 상대할 것이 없어 사물을 명령하지 사물에서 명령받지 않으니 氣가 이길 바가 아니다.』

朱子는 論語 人佾篇 『罪를 하늘에서 얻으면 빌어도 소용이 없다』를 주석한 章句에서 『天은 곧 理致이다. 그 높음이 상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觀心說에서 말하기를 『무릇 心이란…… 사물에 명령하지 사물에서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퇴계의 말도 모두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비록 理氣가 서로 병립·대응하여 상호 매개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말하자면 理가 氣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體가 정립된 이후에 用이 行하는 것이다. 그 존재를 말하자면 理氣에는 선후가 없는데, 理의 높음이 상대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가치가 존재에 우선함을 말한 것이다.

六. 그것을 요약하면 퇴계가 理氣를 論說한 것은 모두 天命新圖의 圓에 근거할 것이다. 그가 사단칠정론을 論說하여 『理가 發하면 氣가 그것을 따르고 氣가 發하면 理가 그것을 탄다.』라 하고, 理氣를 論說하여 『理가 動하면 氣가 따라서 생기고 氣가 動하면 理가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한 것은 모두 理氣가 妙凝하여 不離不雜한다는 辯證論이며, 그 發想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틀린 바가 없다.

庚午年 11월 退溪 70세 되던 해 奇明彦에게 답한 글에서·

『단지 理는 감정·의지가 없고, 計度함이 없고, 造作함이 없다는 朱子の 論說을 지킬 줄 안다면, 나는 物理의 極處에 도달하여, 理가 어떻게 능히 스스로 理의 극처에 이를 수 있는가를 궁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故로 物格의 格과 無不到의 到를 단단하게 把握하는 것은 모두 자기 스스로 궁구하고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다…… 지금 그가 格物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본디 내가 物理의 極處에 이름을 궁구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가 物格이라고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어찌 物理의 極處는 스스로 궁구하는 바를 따라서 도달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이것은 감정과 의지가 없고, 造作함이 없는 것을 아는 것 — 이것이 바로 理 본연의 體이다. 우연히 발견되는 것을 좇아서 도달하지 않음이 없는 것 — 이것은 理가 神의 用이며 向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본체의 無爲는 보나, 妙用이 능히 顯行함을 모르는 것은 바로 理를 死物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것이 道에서 떠남이 어찌 멀고 멀지 않겠는가!』

『理는 死物이 아니나, 감정과 의지가 없고, 計度함이 없으며, 造作함이 없는 청정결백하고 空濶廣大한 理가 스스로 궁구하는 나를 좇아서 妙用顯行하는 즉 청정결백한 理光의 도래이다. 퇴계가 窮理貫通하여 道體의 妙를 體談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바로 이것은 理氣는 不離不雜하다는 연구의 극치이다.』